

(9급)

1.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리끼 :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 ② 무람없다 : 생김새가 불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 ③ 국으로 : 제 생긴 그대로
- ④ 짜장 : 과연 정말로

2. 짝지어진 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보조 용언인 것은?

- ① [이 책도 한번 읽어 보거라.
밖의 날씨가 매우 더운가 보다.]
- ② [야구공으로 유리를 깨 먹었다.
여름철에는 음식물을 꼭 끓여 먹자.]
- ③ [이것 좀 너희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렴.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 일을 거들어 드린다.]
- ④ [이것 말고 저것을 주시오.
게으름을 피우던 그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3.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 낮익은, 철수의 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 ㉡ 꺼진 불도 다시 보자
 - ㉢ 휴가를 낸 김에 며칠 폭 쉬고 온다?
 - ㉣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 ① ㉠ : 습표를 보니 관형어 '낮익은'은 '철수'와 '동생'을 동시에 수식함을 알 수 있다.
- ② ㉡ : 마침표가 없는 것을 보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제목이나 표어임을 알 수 있다.
- ③ ㉢ : 물음표를 보니 의문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의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작은따옴표를 보니 '일이 다 틀렸나 보군.'은 마음속으로 한 말이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밑줄 친 용언의 활용형의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가까왔다.
- ② 일이 다 잘되서 다행이다.
- ③ 입구에 붉은 글씨가 찍어 있다.
- ④ 생각컨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 사면(四面)으로 두른 것은 토끼 잡는 그물이고, 토끼 은신수풀 속 쫓는 것은 초동(樵童)이라. 그대 신세 생각하면 적벽강에 전패(全敗)하던 조맹덕의 정신이라. 작은 눈 부릅뜨고 짧은 꿈지 뒤에 끼고 절벽상에 정신없이 달아날 제…….
- ① 小隙沈舟 ② 魂飛魄散 ③ 亡羊補牢 ④ 干名犯義

6. 다음 자료가 간행된 시기에 나타난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太子 | 道理 일우샤 죽개 慈悲호라 헉시느니
『석보상절』
- ① 'ㅅ'과 'ㄱ'이 단모음화된 시기이다.
 - ② 합용 병서와 각자 병서가 쓰였던 시기이다.
 - ③ 주격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기이다.
 - ④ 모음 조화가 현대 국어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이다.

7.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입이 발아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 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 ③ 이번 일은 내가 허방 짚은 격이다.
-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
- 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
- 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

8.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
- 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
- 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
- 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

9.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보기>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 모두 옳은 것은?

- <보기>
- 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라고 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로 규정한다. 예컨대 'ㅌ'은 [+치조음, -양순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가로 : [+경구개음], [-후음]
 - ② 미비 : [-경구개음], [+후음]
 - ③ 부고 : [+양순음], [-치조음]
 - ④ 효과 : [-후음], [-연구개음]

10. 밑줄 친 ㉠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표준어 규정」 제2부 표준 발음법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4. ㉠ 'ㅎ(하, 하)'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낮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싫어도[시러도]……
- ① 바지가 다 닿아서[다라서] 못 입게 되었다.
 - 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끄리고] 있다.
 - 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노아] 두렴.
 - 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안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

11.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
- 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 감, 귤 들이 많이 있다.
- 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
- 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

12.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변명(辨明)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 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人識)에 영향을 끼친다.
-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大處)해야 한다.
- 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禪讓)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

13.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물[水]'이 현대 국어에 와서 '물'로 형태가 바뀌었으며, '어리다'가 '어리석다[愚]'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나이가 어리다[幼]'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이라고 한다.
- ① 사회성 ② 역사성 ③ 자의성 ④ 분절성

(9급)

14.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 중에서 —

-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 이것은, / 치명적인 냄새
- ②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 열(熱)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 ④ 피아노에 앉은 / 여자의 두 손에서는 / 끊임없이 / 열마리씩 / 스무 마리씩 / 신선한 물고기가 /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 쏜아진다.

15. ㉠~㉣ 중 밑줄 친 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 확장 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 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회학자 드 세토(De Certeau)는 “기술은 문을 열 뿐이고, 그 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했다. 정보 통신 기술은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 ㉢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정보 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 선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16.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의 이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 조로 하느냐 하강 조로 하느냐에 따라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이 경우 억양은 문장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또 억양은 이러한 문법적 기능 이외에 화자의 태도와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하강 억양은 완결의 뜻을,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 억양에는 이처럼 발화 태도와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

- ① 억양을 잘 이해할수록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가 어렵다.
- ② 억양은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 ③ 상승 억양에는 화자의 비판적 태도와 의미가 담길 수 있다.
- ④ 같은 문장이라도 소리의 장단에 따라 문장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17.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새울세라
청강(淸江)에 일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 ① 작자는 정몽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 ② 색의 대비를 통해 까마귀를 옹호하고 있다.
- ③ ‘새울세라’는 ‘고칠까봐 두렵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 ④ 수사법상 비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18.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호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설온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논 듯 도서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太平盛代)

- ① 한용운, 「님의 침묵」
- ②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③ 서정주, 「국화 옆에서」
- ④ 김소월, 「진달래꽃」

19. 문맥을 고려하여 ㉠~㉣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

길동이 ㉠ 체읍주왈(涕泣奏曰), “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父兄)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 ㉡ 팔자 기박하여 천생(賤生)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 가(家)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蒙昧)로 몸이 ㉢ 적당(賊黨)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붙였더니,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小弟)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 하며, 담화로 날을 새우고 평명(平明)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 참연(慘然)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

- ① ㉠: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
- ② ㉡: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
- ③ ㉢: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
- ④ ㉣: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

20.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링곤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젖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 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
-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
-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
-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